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행 동지 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박노철(안식중)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 <예 배 순 서>

인도 : 가족 중 어른

목도	.....	다함께
성찬	.....	인도자
찬송	시편 1편 1-3절	.....
기도(또는 사도신경)	304장(통일 404장)	.....
성경봉독	.....	다함께
메시지	이사야 43:1-7	.....
찬송	"너는 내 것이라"	.....
주기도	563장(통일 411장)	.....
	.....	가족중(다함께)
	.....	인도자
	.....	인도자
	.....	다함께
	.....	다함께

## "너는 내 것이라"

### 이사야 43:1-7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되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느니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온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가족 모두 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흠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 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술작가들이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생명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 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되기 위해 바치는 대금,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택한 성도들,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를 위해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 셋째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상반부를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을 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행하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날 새해 아침, 우리 가족 모두가 귀를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예·결산을 위한 특별제직회 찬양예배후 / 다음주는 공동의회

작년 10월 정기당회, 11월 정기당회가 한건의 안건도 논의하지 못한채 파행되고, 12월 정기당회는 소집 조차 되지 않아 매년 마지막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와 새해 첫주 찬양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였으나 무기한 연기 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화) 임시당회에서 오늘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와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 부교역자 사임

계속된 당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교역자 사임건을 1월17일(화) 임시당회에서 처리하였다.

- 사임 부목사 : 유문건 박영준 장재원
- 사임 전도사 : 이진광

## 다음주 설 연휴로 순례자 휴간

다음주 순례자는 설 연휴로 휴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향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은 1면 가족예배순서를 참고하시어 주일저녁 가족이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총회 헌법위원장, 서울교회 방문하다

지난주일 안식년관련 헌법해석통보를 한 총회 헌법위원장 목사의 서울교회 방문이 있었다.

담임목사는 안식년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담임목사로서의 시무가 안식년기간 동안 정지되므로 그때부터 설교나 당회 인도 등 일체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계속 담임목사로서의 직무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여 다수 장로들은 교회의 예배와 질서의 평온을 위하여 교단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위원회의 회신이 올 때까지 담임목사의 설교와 당회인도중지를 잠시 유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안식년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통보됨에 따라 유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안식년규정에 의거하여 담임목사의 안식년이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시무정지 상태가 되는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대리당회장을 청빙하고 시급한 설교 등 예배에 관한 주관을 먼저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담임목사는 총회 헌법해석은 단순한 해석일 뿐이라며 이에 따르지 않은 채 계속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헌법위원회의 해석 때문에 조용하던 서울교회가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며 헌법위원장에게 무작위로 거친 항의를 하게 되자 헌법위원장은 직접 서울교회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일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에 담임목사와 양측 장로들이 합석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서울교회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날 헌법위원장은 "통보한 해석에 아무런 의문이나 오류도 없고 헌법위원회는 해석뿐만 아니라 법리판단도 할 수 있으며 특히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철저히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서울교회 상황을 들어보니 마치 헌법위원회의 해석 때문에 조용하던 서울교회가 갑자기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더 이상 헌법위

헌법위원장은  
"통보한 해석에  
아무런 의문이나 오류도 없고  
헌법위원회는  
해석뿐만 아니라  
법리판단도 할 수 있으며  
특히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철저히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회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부탁을 했다. 또한 **지난주일 발행된 순례자 5면에 '헌법위원회 유권해석과 법리판단에 의거하여'**라는 표현은 **마치 헌법위원회가 서울교회 혼란의 발단이 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수 장로들은 서울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미 수차례의 순례자 보도를 통하여 안식년규정의 헌법위반문제와 담임목사의 안식년규정 준수 의무에 대하여 논쟁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통보에 의하여 이제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만 헌법위원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해명 기사를 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오늘 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것이다

한편 담임목사는 그날 헌법위원장이 헌법해석에 관계없이 여전히 박노철 목사가 당회장이고 그에 의거하여 당회가 인도되어야 하며 목양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는 박노철 목사가 비록 안식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안식년이 시작될 때까지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였을 뿐 당회를 인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판단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만일 담임목사의 주장대로라면 안식년에 관계없이 계속 시무한다는 의미가 되어 '6년 시무 후 안식'이라는 표현과 상충되고 특히 장로들은 안식중 당회원 시무를 중지하는데 담임목사만 시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 되어 모순이며 또 이러한 해석은 필요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다시 질의를 하여 헌법위원회 차원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헌법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 피력할 것이 아니므로 이제 더 이상 헌법위원장 개인을 힘들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박노철 목사가 현재 교회 규정상 안식년이 시작되었음에도 그동안 위 안식년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 강단을 지키겠다고 하였던 것에 있으므로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위 안식년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해석판단이 통보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를 가지고 안식년을 회피하려 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안식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하여는 지교회 규정 등 자체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안식년에 들어가더라도 위임목사나 당회장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양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권한한 것에 대하여 그날 다수 장로들은 박노철 목사의 목양실 사용은 안식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용범위 내에서는 이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이행을 약속한 각서의 작성과 발표경위에 대하여

### 박노철 목사는 모든 장로들 간의 합의정신을 살려 구두로 발표하고 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노문환 장로(당회서기)

박노철 목사는 지난주일 503호실에서 총회 헌법 위원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이어진 22명의 장로들(시무장로 20명, 안식장로 1명, 은퇴장로 1명) 과 5시간여의 긴 대화와 논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먼저 5층 복도에 가득차서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직접 발표하였고, 지금까지 여러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발표만 가지고 부족하니 문서로 남겨줄 것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의 입회하에 당회장실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각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성도들에게 건네 주었다.

그날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석하였던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헌법위원장과 합의면담이 끝난 후 참석자들 사이에서 “오늘 주일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심한 분란과 극한 대립의 모습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재발방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

추어 얘기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교회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하여, 1.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을 떠나고, 2. 박 목사와 모든 장로가 총사퇴 할 경우의 후속대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3-6개월)을 가지며, 준비가 되는데로 박 목사와 모든 장로가 총 사퇴하기로 하였으며, 3.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1월17일에 당회로 모여서 논의하기로 하여 합의된 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합의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최차순 장로 본인인 사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논의과정에서는 사퇴에 동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발표한 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문 발표에서는 제외하였다고 한다.

전술한대로 어떻게든 교회의 정상화를 이루어 교인들 간의 더 이상의 대립이나 충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유로운 의사표시 하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말

을 바꾸어 위와 같은 구두 약속이나 서면작성은 강제로 억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날 장로들과의 대화 당시 전혀 합의된 바 없어 발표나 서면 약속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원로목사와 부목사들의 동반사퇴까지 주장하고있는데 박노철 목사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와 말바꾸기 발언은 서울교회의 현상황을 정상화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들과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절차를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의 정상화와 성도들 간의 극단적인 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박노철 목사는 모든 장로들 간의 합의정신을 살려 구두로 발표하고 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박노철 담임목사는 그대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선한 싸움으로  
영하의 흑한에도  
몸으로 교회를 지키며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낮을 구하는  
여호와의 밤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  
문 인방에 바르고  
당신의 긍휼함을 기다리는  
마지막 밤  
유월절처럼

돌성경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서울교회 천군 천사들  
세상에  
어떤 핵무기보다  
뜨겁고 강하고 질긴  
서울교회 사랑의 띠여

그 나라, 그 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서슬퍼런 하나님의 사람  
서울의 군사들!

그 밤  
스무다섯해 전  
대치동 폐허의 땅  
건축 쓰레기더미 앞에서  
교구마다  
예배당을 꿈 꾸며  
기도의 장작을 쌓아 올리고  
사랑의 불씨로 불을 부치며  
어두운 밤을 밝혀  
불침번 서던  
서울교회 첫 사랑  
사랑의 트랙이어

오늘도  
그 캄캄한 흑한의 밤  
서로의 뜨거운 가슴을 열어  
작은 별들이 되어  
대치동을 환히 밝히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밤

25년 전  
하늘도 다한  
목사님의 삭발한 머리가  
갱그리야를 지나  
서울교회를 휘돌아  
녹슬은 십자가  
지금,여기 ...

칠혹 같은 어둠속  
침묵을 깨고 일어나신  
목사님의 큰 숨소리  
물러섬이나 망설임 없이  
맨살로 끌어안은  
찢어진 서울교회여

오늘도  
삭풍의 칼날 위에 서신  
당신의 외로운 지팡이가  
위대하고 자랑스런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

오고 오는 자손 만대에서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로..  
물어바다 넘침같이  
달려가리라  
서울교회  
승리의 그 날을 향하여...



# 존재의 가치를 알려준 호산나대학

이은숙

(호산나대학 서비스학과 3학년 박수진 어머니)

호산나대학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일 호산나대학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욕심껏 아이를 포장해서 일반대학교에 입학시켜 버렸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성격의 수진이는 학업에서는 별무리 없이 잘 따라하는 모습이었으나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고2 때 장애인 등급을 받고 도움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움반 시절은 제게도 수진이에게도 악몽같았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며 온갖 뽀루지들이 덮고 있는 모습과 화에 가득찬 눈빛으로 힘든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수진이 진로를 고민하던 중 학교 설명회에서 호산나대학의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호산나대학으로 방문하여 빼어난 경관과 안정된 보금자리를 보고 다시한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망설임 없이 수진이를 호산나에 입학울시켰습니다.

하지만 호산나대학에 입학시키고 기뻐할 겨를도 없이 아이가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정승처럼 서있었다화장실도 안가고 말도 안하고 고개를 숙이고 서있더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업이 있는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지만, 부학장님과 교수님들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적응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반대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 속에 1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시커멓던 피부색이 빛을 받기 시작했으며, 눈빛에 생기가 돌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수진이가 호산나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지금처럼 자신감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3학년이 되어서는 장애인 아이들의 고시라고도 얘기하는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쉽게 딸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호산나대학 교수님들의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원에 다녀온 시험 대비반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복습을 시키고, 아이들의 반찬을 준비해주시고 (밥은 학원에서 지어서 같이 먹지만 반찬은 싸와야합니다.) 학원까지 실어나르시는 그 모든 부분을 뒤에서 묵묵히 해주셨기에 합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수진이는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어렵사리 뚫어주시는 자연드림이라는 곳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낯선 곳에서 다시 뻗뻗해지는 모습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 아이가 그 사업체에 적응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교수님께서 몇 번이나 오셔서 매니저님과 상담을 하면서 한 주씩 연장을 시키면서 수진이가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수진이 외에도 모든

아이들을 취업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취업이 된 후에도 교수님들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상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고통들을 장애인 부모들은 갖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기에 더욱 불리한 지적장애아이들은 매우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자칫 방치될 경우에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숨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지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호산나대학을 건립해 주셔서 그동안 몰심양면으로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없으셨다면 많은 지적장애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나갈 수 없었기에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수진 어머니께서 박수진양 취업에 감사하며 호산나대학에 100만원을 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월26일(목) WRF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Wittenberg국제대회 준비위원회의 영상회의에 참여한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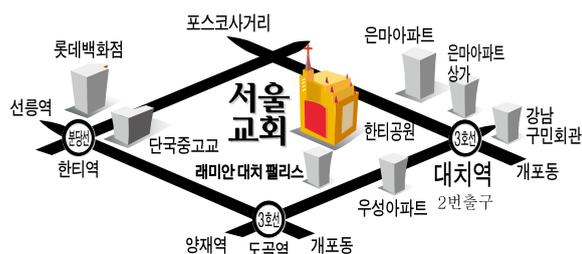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2.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다음세대의 부흥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3. 이 땅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도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